KNTEC
Korea-Nordics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2026-09

Nordic R&D Policy Newsletter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Contents

북유럽 연구혁신 정책 동향

스웨덴

1. 스웨덴 정부, 국가 양자기술 전략 발표…연구·산업·안보 역량 강화 추진
2. 스웨덴 정부, 기업 R&D 투자 촉진 위한 신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추진
3. 스웨덴 정부, 기초연구 성과의 사회·산업 활용 확대방안 마련 추진
4. 스웨덴 정부, 산업 탈탄소 전환·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체계 전면 검토 착수
5. 스웨덴 정부, 기후·지속가능한 사회구축·식품 국가연구프로그램 2028년까지 연장
6. 스웨덴, 의료데이터의 연구·디지털 의사결정 지원 활용 확대 위한 규제개편 착수
7. 스웨덴 정부, 공공기관 AI·외부 클라우드 활용 시 정보공개 원칙 적용기준 검토
8. 스웨덴, 납냉각 SMR 8기 신규 원전 승인 신청…원전 확대 본격화
9. 대장암 검진 참여, 대장암 사망위험 최대 43% 감소와 연관
10. RISE, 유럽 24개국과 의료·제약 분야 PFAS 대체기술 개발 착수
11. KTH, 니트로셀룰로오스 방산 소재 연구센터 설립…국내 공급역량 강화
12. 찰머스공대, 마비 환자의 감각 회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추진
13. 우메오대, 의료영상 구조정보·예측 불확실성 반영한 AI 분석기법 개발
14. 룬드대, 소아 악성 뇌종양 발생의 새로운 분자기전 및 치료 가능성 제시
15. 룬드대, 광손실 줄이는 나노와이어 기반 차세대 LED 기술 개발
16. 린셰핑대, 폐열 발전·그린수소 생산 차세대 에너지기술 연구 추진

덴마크

17. 노보노디스크재단, 5,300㎡ 규모 양자칩 생산시설 구축
18. 덴마크 8개 대학, 독립형 AI 연구 플랫폼 'UCloud AI' 출시

19. 칼스버그재단, 3개 융합연구센터에 1억 5,000만 DKK 지원

20. 코펜하겐대, 9개월간 연구기반 스핀아웃 8개 설립

21. 남덴마크대학교, 전기차를 무선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노르웨이

22. 노르웨이·핀란드, 첨단 AI 통제 강화 국제 공동성명 주도

23.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18개 기업 혁신사업에 2억 2,800만 NOK 지원

24.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80개 연구성과 상용화에 각 50만 NOK 지원

25. 노르웨이 Simula·Akkodis, 핵심 인프라용 보안 컴퓨팅 플랫폼 공동개발 추진

26.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23개 혁신 연구과제에 2억 6,900만 NOK 지원

27. 베르겐대, 양자기술센터 개소…의료·보안·항법 기술 개발

핀란드

28. 핀란드, 3.88억 유로 규모 차세대 LUMI-AI 슈퍼컴퓨터 구축…AI 연산성능 10배 확대

29. 핀란드, 유럽 최초 논리 큐비트 기반 초전도 양자컴퓨터 구축 추진

30. 핀란드, 북극권 변화·국민 정신건강 전략연구에 2,400만 유로 지원

31. 핀란드 VTT 스핀오프 S-Transistors, 초전도 트랜지스터 기반 양자컴퓨터 제어기술 사업화 추진

32. 핀란드, 양자기술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Co-Research 연구에 400만 유로 지원

33. 핀란드, 글로벌 성장 초기기업 대상 'Sprint Grant' 신규 지원 프로그램 시행

34. 핀란드 VTT·Millog, NATO DIANA 이중용도 기술 시험·검증 협력 확대

35. 핀란드, 5대 RDI 전략분야 이행 본격화…AI가 연구·혁신에 미치는 영향 평가 착수

36. 핀란드, 한국 등 8개국과 핵융합에너지 연구·상용화 국제협력 강화

스웨덴

1. 스웨덴 정부, 국가 양자기술 전략 발표…연구·산업·안보 역량 강화 추진 (2026.8.18.)

○ 스웨덴 정부는 양자기술을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기술로 보고, 연구·혁신, 산업화, 인력양성,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국가 양자기술 전략을 발표함

- 스웨덴이 보유한 우수한 양자 연구역량을 산업적 활용과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인프라 활용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특히 기존 연구·혁신정책에서 추진 중인 양자기술 전략연구분야와 우수연구 클러스터(excellence clusters) 등을 연계해 분산된 연구·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기술개발·산업화로 이어지는 양자기술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임

○ 세부내용

【스웨덴 국가 양자기술 전략 5대 추진분야(2036년 목표)**】**

① 연구·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대학·연구기관·기업·공공부문 간 연구·혁신 연계 강화
- 양자 연구·기술 인프라 활용과 실증환경 확충
- 연구성과의 산업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② 전문인력 기반 확충

- 양자기술 분야 교육·연구인력 기반 강화
- 연구계와 산업계 간 인력교류 및 국제 우수인재 유치 확대
- STEM 및 양자기술 분야의 장기적 인재기반 강화

③ 국가 양자 생태계 연계·조정 강화

- 정부기관·대학·산업계·혁신생태계 간 협력 강화
- 기초연구에서 응용·혁신·산업 활용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 구축

④ 전략기술 보호 및 보안역량 강화

- 연구보안,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관점의 기술보호 강화

- 양자컴퓨터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의 위험에 대비한 보안역량 확보

⑤ 국제협력 및 표준화 확대

- EU 및 주요 국제 파트너와 양자기술 연구·혁신 협력 강화
- 국제표준화 참여를 통해 스웨덴의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 정부는 양자기술을 연구·산업정책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가 결합된 전략기술로 접근하고, 개방적 국제협력을 지속하면서 핵심기술 보호와 공급망·보안 역량을 함께 강화할 방침임

- 또한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연구·혁신사업에서 축적되는 지식과 로드맵 등을 향후 정책 조정에 활용할 계획임

※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6/08/regeringen-presenterar-en-strategi-for-kvantteknik/

2. 스웨덴 정부, 기업 R&D 투자 촉진 위한 신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추진 (2026.8.17.)

○ 스웨덴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인력의 일정 인건비를 실제 지출액보다 확대해 사업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인센티브 도입안을 법률위원회(Lagrådet)에 제출함

-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R&D 관련 사회보험료 특별공제법(2023:747)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일정 인건비에 대해 200%의 비용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임
-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R&D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의 2배를 사업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과세소득을 낮추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스웨덴 내 R&D 활동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연구·혁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됨

※ 출처: https://regeringen.se/rattsliga-dokument/lagradsremiss/2026/08/ett-nytt-skatteincitament-for-forskning-och-utveckling

3. 스웨덴 정부, 기초연구 성과의 사회·산업 활용 확대방안 마련 추진 (2026.8.20.)

○ 스웨덴 정부는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가 학계를 넘어 산업·공공부문·사회 전반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스웨덴연구협의회(Vetenskapsrådet)에 기초연구 성과의 활용(Nyttiggörande)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부여함

- Vetenskapsrådet는 모든 연구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핵심 임무로 하며, 연구과제·연구환경·연구인프라 등에 연간 90억 SEK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연구성과의 '활용'을 학술적·사회적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논문 발표·박사인력 양성·연구환경 간 역량이전뿐 아니라 근거기반 정책결정, 기업협력, 연구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대중적 지식확산 등을 주요 활용방식으로 제시함

○ Vetenskapsrådet는 대학·공공부문·산업계 및 사회 전반에서 기초연구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지원 수단(financing instruments)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분석에는 해외 사례와 다른 연구지원기관 및 일부 대학의 경험을 반영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기초연구 성과의 활용 정도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indicators)도 개발할 계획임
- 최종 결과는 2027년 9월 1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6/08/vetenskapsradet-far-uppdrag-om-nyttiggorande-av-grundforskning

4. 스웨덴 정부, 산업 탈탄소 전환·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체계 전면 검토 착수 (2026.9.3.)

○ 스웨덴 정부는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기적으로 감축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수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정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지침(Dir. 2026:112)을 발표함

- 조사위원회는 현행 산업전환 지원제도와 담당기관 간 역할분담이 시장실패를 해소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개선 및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임

- 특히 EU 배출권거래제(EU ETS)로 인해 일부 산업이 부담하는 간접비용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을 제안할 계획임

○ 산업의 대규모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탄소차액계약(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 도입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함

- CCfD가 저탄소 기술투자의 비용과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비용효율적인 산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EU 차원의 관련 정책동향과 기존 국내 지원제도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CCfD 도입 필요성과 가능한 제도 설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탄소차액계약(CCfD): 저탄소 기술의 탄소감축 가치에 대해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 초기 투자비가 큰 산업 탈탄소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수단

- 이와 함께 순환·화석연료 비사용·저배출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가 바이오 기반 및 순환 원료·에너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EU 규제와 정책수단의 영향도 분석할 계획임

○ 조사위원회는 산업전환 지원체계, EU ETS 간접비용 보상, CCfD, 저탄소 제품 수요 및 순환·바이오 기반 원료 공급 등을 포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7년 11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 출처: https://regeringen.se/rattsliga-dokument/kommittedirektiv/2026/09/dir.-2026112

5. 스웨덴 정부, 기후·지속가능한 사회구축·식품 국가연구프로그램 2028년까지 연장 (2026.8.27.)

○ 스웨덴 정부는 기후, 지속가능한 사회구축, 식품 등 주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3개 국가연구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연구지원기관 Formas에 프로그램 지속 추진을 지시함

- 해당 프로그램은 2017년 각각 10년 계획으로 출범했으며, 정부는 「2025~2028 연구·혁신정책안」에 따라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고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의 장기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할 방침임

【국가연구프로그램 분야별 지원계획】

① **기후(Climate)**

- 연간 2억3,000만 SEK를 지속 지원하고, 추가로 2027년 1,000만 SEK, 2028년 2,000만 SEK

지원

② 지속가능한 사회구축(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 2025~2028년 연간 약 1억2,500만~1억3,500만 SEK를 지원하고, 별도로 2026년 300만 SEK, 2027년 500만 SEK, 2028년 1,500만 SEK 추가 지원

③ 식품(Food)

- 기존 연간 1억1,000만 SEK에 더해 추가지원을 2025년 2,500만 SEK → 2028년 1억1,000만 SEK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3개 프로그램 중 지원 확대 폭이 가장 큼

○ 정부는 국가연구프로그램의 지원방식과 성과를 평가하고, 2027년 8월까지 제출되는 평가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임

※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6/08/regeringen-forlanger-nationella-forskningsprogram/

6. 스웨덴 정부, 의료데이터의 연구·디지털 의사결정 지원 활용 확대 위한 규제개편 착수 (2026.9.3.)

○ 스웨덴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연구에서 환자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고 조사 지침(Dir. 2026:99)을 발표함

- 현행 규제가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목적을 넘어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처리·공유하는 데 어떠한 제약을 초래하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와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임

○ 특히 의료현장에서 디지털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igital decision suppor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구 참여가 가능한 환자와 연구자 간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함

- 현행 규제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도입에 충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임

- 아울러 연구 참여가 가능한 환자가 연구자와 보다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2028년 11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 출처: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kommittedirektiv/2026/09/dir.-202699

7. 스웨덴 정부, 공공기관 AI·외부 클라우드 활용 시 정보공개 원칙 적용기준 검토 (2026.9.4.)

○ 스웨덴 정부는 공공행정에서 인공지능(AI)과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를 통해 생성·저장·처리되는 정보에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조사위원회(Dir. 2026:116)를 구성함

- 스웨덴 국가 AI 전략은 세계 AI 선도 10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AI를 활용해 공공행정의 비용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임
- 다만 공공기관의 AI 활용 과정에서 대규모 정보가 처리되고 외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이용도 확대될 수 있어, 이러한 정보처리가 기존 공공문서 공개제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조사위원회는 정부기관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AI 및 외부 클라우드 기반 AI 도구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생성·저장되는 정보가 공개 대상인 공공문서(allmänna handlingar)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특히 AI 도구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거나 저장되는 디지털 기록의 법적 지위를 분석해, 공공부문의 AI 활용과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 간 관계를 구체화할 계획임
- 조사 결과는 2027년 11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AI·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임

※ 출처: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kommittedirektiv/2026/09/dir.-2026116

8. 스웨덴, 납냉각 SMR 8기 신규 원전 승인 신청…원전 확대 본격화 (2026.8.27.)

○ 스웨덴 원자력기업 Blykalla AB는 Tierp시 Untra 지역에 납냉각 소형모듈원자로(SMR) 8기, 총 전기출력 약 440MW 규모의 신규 원자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함

- 이번 계획은 기존 대형 경수로와 달리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SMR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로, 스웨덴 정부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공급 확대와 산업계의 전력수요 대응 과정에서 SMR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는 전력공급 능력 부족이 산업투자를 제약하고 기후·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무탄소 전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신청은 최근 6개월간 스웨덴에서 제출된 다섯 번째 신규 원전 설립 신청으로, 해당 5개 신청의 잠재적 총 전기출력은 약 3,700MW에 달함

-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2,5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증가하는 무탄소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원전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현재는 신규 원자력시설에 대한 승인 신청 단계로 실제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후속조치로 Uppsala주 행정청에 Untra 원전단지의 시설계획을 마련해 2027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함

○ Blykalla는 이후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신규 원전 재정지원도 신청했으며, 이는 스웨덴 정부가 관련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접수한 여섯 번째 원전 재정지원 신청임

-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는 원자력시설 승인 및 시설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검토 절차도 병행하게 됐으나, 지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6/08/annu-en-ansokan-om-etablering-av-ny-karnkraft/

9. 대장암 검진 참여, 대장암 사망위험 최대 43% 감소와 연관 (2026.8.20.)

○ 카롤린스카 의과대학교(KI)와 우메오대학교 연구진은 스톡홀름·고틀란드 지역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최대 14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실제 검진 참여자의 대장암 사망위험이 비참여자보다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연구결과는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됨

- 연구진은 2008~2012년 검진 대상자 등을 포함한 37만 6,511명을 분석하고, 검진 참여 여부와 추적기간 중 추가 검진 참여 등에 따른 통계적 편향을 보정함

- 분석 결과, 검진 초청 자체는 대장암 사망위험을 26%, 실제 검진 참여는 43% 낮추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은 현재 60~74세를 대상으로 2년마다 무료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택에서 채취한 대변의 잠혈 여부를 검사한 뒤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함

- 연구진은 간단한 무료 검사임에도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검체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가 대장암 조기검진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함

※ 출처:
https://news.ki.se/bowel-cancer-screening-could-reduce-mortality-by-over-40-per-cent

10. RISE, 유럽 24개국과 의료·제약 분야 PFAS 대체기술 개발 착수 (2026.9.1.)

○ 스웨덴 국립연구소 RISE는 의료·제약 분야에서 사용되는 PFAS (과불화화합물)의 사용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럽 연구혁신 프로젝트 'PFAROS'에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함

- PFAROS는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및 포장재 등 의료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PFAS의 기능과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제품 성능과 환자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PFAS-free 소재와 공정을 개발·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소 30개의 PFAS-free 대체기술 개발·검증과 함께 안전·지속가능 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폐기물에서의 PFAS 배출 저감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임

○ RISE는 소재 특성 분석과 PFAS 분석·제거 기술, SSbD 적용 등을 담당하며, AI 기반 최적화와 모델링을 활용해 대체 소재·공정의 산업 적용을 지원할 예정임

- 프로젝트에는 24개국 89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4,100만 유로, 연구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31년 8월까지 5년임. 벨기에 겐트대학교가 총괄하고 EU Horizon Europe의 Innovative Health Initiative Joint Undertaking(IHI JU)이 지원함

※ 출처:
https://www.ri.se/en/news/rise-participates-in-major-european-initiative-to-reduce-pfas-in-healthcare

11. KTH, 니트로셀룰로오스 방산 소재 연구센터 설립…국내 공급역량 강화 (2026.9.1.)

○ 왕립공과대학교(KTH)는 추진제의 핵심 원료인 니트로셀룰로오스의 해외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venskt Krut' 역량센터를 설립함

- KTH를 중심으로 스웨덴 방위물자청(FMV), 국방연구원(FOI) 및 산업계가 참여해 원료부터 제조·노화·안전한 저장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을 연구하며, 스웨덴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 기반 셀룰로오스의 대체원료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아울러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장기 열화과정과 새로운 안정제, 수명평가 기술을 연구하고 첨단 소재분석·모델링 및 AI 기술을 연구에 활용할 예정임

○ 센터는 연구개발과 함께 박사과정 및 연구자 공동교육, 산업계·정부기관 대상 전문교육을 추진해 니트로셀룰로오스 및 추진제 분야의 장기적인 전문인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사업기간은 2026~2031년이며, FMV가 총 1억 SEK를 지원함. 이를 통해 원료·소재 및 제조공정에 대한 국내 연구·기술역량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스웨덴의 방산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출처:
https://www.kth.se/en/om/nyheter/centrala-nyheter/kth-bygger-svensk-kunskap-om-nitrocellulosa-1.1492382

12. 찰머스공대, 마비 환자의 감각 회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추진 (2026.9.3.)

○ 찰머스공과대학교 연구진은 척수손상으로 팔과 손이 마비된 환자가 뇌 신호를 통해 로봇 팔·손을 제어하는 동시에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식형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iBCI) 개발을 추진함

- 'Bionic-Dexterity' 프로젝트는 뇌의 운동 신호를 해독해 로봇 팔·손을 제어하는 한편, 체성감각 피질에 전기 미세자극을 전달해 촉각과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을 복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연구진은 뇌가 촉각과 신체의 위치·움직임·힘 등의 감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계산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신경자극 패턴을 개발한 뒤 뇌 신호 해독 및 로봇 제어기술과 통합할 계획임

※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신체 부위의 위치와 움직임, 힘의 정도를 인지하는 감각으로, 자연스럽고 정밀한 운동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번 연구는 신경과학, 계산모델링, 신경 인터페이스 및 로봇공학을 융합해 운동 제어와 자연스러운 감각 피드백을 동시에 구현하는 신경보철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유럽연구위원회(ERC)가 Starting Grant 250만 유로를 지원함

※ 출처: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6/06/fordjupat-samarbete-i-fokus-nar-sverige-och-usa-mottes-kring-framtidens-cancervard/

13. 우메오대, 의료영상 구조정보·예측 불확실성 반영한 AI 분석기법 개발 (2026.9.3.)

○ 우메오대학교 연구진은 의료영상의 해부학적 구조정보를 머신러닝 모델에 반영하고, AI 예측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영상 분석기법을 개발함

- 기존 의료영상 AI는 학습 데이터가 제한적인 데다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연구진은 수학적 형태학(mathematical morphology)과 머신러닝을 결합해 개별 픽셀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된 해부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을 식별하도록 모델을 설계함

- MRI 영상에서 인접 영역이 동일한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무작위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분석결과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각 예측의 확실성까지 정량화해 분석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부분과 불확실성이 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된 방법을 알츠하이머병 관련 뇌 구조 변화의 식별·분류에 적용한 결과, 기억·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의 변화 패턴을 보다 일관되고 해석 가능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

- 연구성과는 Disi Lin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 「Structure- Aware Machine Learning for Medical Image Analysis」에 정리됐으며, 의료영상 AI의 신뢰성과 해석가능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출처: https://www.umu.se/en/news/new-ai-methods-make-medical-images-easier-to-interpret_12184980

14. 룬드대, 소아 악성 뇌종양 발생의 새로운 분자기전 및 치료 가능성 제시 (2026.8.27.)

○ 룬드대학교 연구진은 혈액줄기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합성분자 UM171의 작용기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아 악성 뇌종양인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의 발생과 관련된 새로운 분자기전을 확인함

- UM171이 KBTBD4 단백질을 통해 세포 내 CoREST 단백질 복합체를 분해하며, 일부 소아 뇌종양에서 나타나는 KBTBD4 유전자 돌연변이도 동일하게 CoREST 복합체의 분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UM171의 영향은 일시적인 반면, KBTBD4 돌연변이는 CoREST 부족을 장기간 지속시켜 세포가 미성숙한 줄기세포와 유사한 상태에 머물며 계속 분열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배아성 뇌종양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연구진은 대규모 약물 스크리닝을 통해 HDAC 억제제가 KBTBD4 돌연변이의 영향을 상쇄할 가능성을 확인해 기존 약물의 새로운 치료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다만 이번 연구는 혈액줄기세포를 이용한 실험실 연구 단계로, 연구진은 향후 실제 수모세포종 모델에서 HDAC 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검증할 계획임

※ 출처:
https://www.lunduniversity.lu.se/article/unexpected-discovery-reveals-mechanism-behind-brain-tumour-development

15. 룬드대, 광손실 줄이는 나노와이어 기반 차세대 LED 기술 개발 (2026.9.4.)

○ 스웨덴 룬드대학교 연구진은 빛의 내부 손실을 줄이고 소재 사용량과 제조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분지형 나노와이어(branched nanowire) 기반의 새로운 LED 구조를 개발함. 연구결과는 학술지 「Nano Research」에 발표됨

- 기존 LED 소재에서는 전반사(total internal reflection)로 인해 생성된 빛의 상당 부분이 내부에 갇히며, 별도의 표면처리가 없을 경우 외부로 방출되는 빛은 약 4%에 불과함
- 연구진은 중심 나노와이어에서 전하를 공급하고 빛의 파장보다 얇은 측면 나노가지에서 발광하도록 구조를 설계해 이러한 광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제시함
- 실험을 통해 빛이 중심부에서 재흡수된 것이 아니라 설계한 측면 나노가지에서 직접 생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론적으로 생성된 빛의 대부분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함

○ 현재 기술은 상용 LED보다 효율이 낮은 초기 연구단계로, 연구진은 나노구조의 표면 결함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소재와 구조를 최적화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향후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소재 사용량과 추가적인 표면처리 공정을 줄여 생산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과 첨단 광전자소자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출처:
https://www.lunduniversity.lu.se/article/new-type-led-light-could-bring-significant-efficiency-gains

16. 린셰핑대, 폐열 발전·그린수소 생산 차세대 에너지기술 연구 추진 (2026.9.3.)

○ 스웨덴 린셰핑대학교(LiU) 유기전자연구소(LOE) 소속 연구자 2명이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연구로 유럽연구위원회(ERC) Starting Grant에 선정돼, 각각 약 1,800만 SEK를 5년간 지원받음

- Nara Kim 연구진은 이온이 생성하는 높은 전압과 전자의 빠른 이동 특성을 결합해 저온·저온도차의 폐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유연한 열전 발전소자를 개발할 계획임

- 산업공정·건물·인체 등에서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 웨어러블 기기나 배터리 교체가 어려운 센서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Catherine Aitchison 연구진은 전도성 고분자 기반의 미세 나노구조 각각을 광촉매 반응기로 활용해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하고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새로운 소재·공정 원리를 연구함. 전하 생성과 이동·수명을 규명하고 이를 최적화해 새로운 광촉매 소재 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2026년 ERC Starting Grant에는 총 4,807명이 신청해 421명이 선정됐으며, 두 연구는 에너지 변환·저장 분야에서 유기전자 및 나노소재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연구로 추진됨

※ 출처:
https://liu.se/en/news-item/erc-miljoner-till-tva-liu-forskare-for-framtidens-energilosningar

덴마크

17. 노보노디스크재단, 5,300㎡ 규모 양자칩 생산시설 구축 (2026.9.04.)

○ 노보노디스크재단(Novo Nordisk Foundation)과 Quantum Foundry Copenhagen은 유럽의 차세대 양자칩 개발·생산·확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펜하겐에 5,300㎡ 규모의 양자칩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신규 공장은 2027년 개소할 예정임

- Quantum Foundry Copenhagen은 노보노디스크재단이 소유한 전문 기술기업으로, 차세대 양자칩 생산에 필요한 자체 장비·소재·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규 공장에서 관련 생산기술을 산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신규 시설에는 양자소재 나노제조, 첨단 특성분석·시험, 칩 조립·패키징을 위한 연구시설과 초고진공(UHV) 기반 생산역량을 결합하고, 전 세계 양자기술 기업에 상업적 조건으로 웨이퍼 제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재단은 유럽이 강점을 가진 양자과학 연구성과를 실제 제품과 산업생산으로 연결하려면 고품질 양자칩의 제조·확대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노보노디스크재단은 현재까지 양자기술 분야에 29억 DKK 이상을 투입했으며, 신규 생산시설을 기존 양자컴퓨팅 연구프로그램과 연계해 연구부터 산업생산까지 이어지는 양자기술 생태계를 구축함

- 재단은 코펜하겐대학교 닐스보어연구소의 Novo Nordisk Foundation Quantum Computing Programme(NQCP)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2034년까지 덴마크 최초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오류내성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함
- Quantum Foundry Copenhagen은 2023년 설립돼 NQCP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초고진공 기술과 bottom-up 방식으로 원자 수준의 높은 순도와 정밀도를 갖춘 양자소재·소자를 제조함
- 신규 공장은 NQCP와 연계해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양성, 산업 생산역량을 연결하고 차세대 양자컴퓨터용 프로세서 생산과 양자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계획임

※ 출처:
https://novonordiskfonden.dk/nyheder/ny-fabrik-i-koebenhavn-skal-styrke-europas-kapacitet-til-fremstilling-af-kvanteteknologi/

18. 덴마크 8개 대학, 독립형 AI 연구 플랫폼 'UCloud AI' 출시 (2026.9.14.)

○ 덴마크 대학들이 첨단 언어모델과 국가 슈퍼컴퓨팅 자원, 보안 디지털 인프라를 하나로 결합한 독립형(sovereign) AI 플랫폼 'UCloud AI'를 출시해 연구자와 학생에게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함0802

- UCloud AI는 남덴마크대학교(SDU)가 개발·운영하며, 기존 국가 연구 플랫폼 UCloud에 통합돼 쇠네르보르의 AI 슈퍼컴퓨터 BITTEN에서 구동됨
- 출시 시점에는 덴마크 8개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이 기존 대학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기관 등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플랫폼에서는 언어모델과 기존 데이터·스토리지·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작업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채팅 인터페이스와 OpenAI 호환 API를 함께 제공함

○ UCloud AI는 AI 연산을 덴마크 내에서 처리하고 데이터와 지식재산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며, 외부 상용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둠

- UCloud는 오픈소스(EUPL)이며 ISO/IEC 27001:2022 인증을 받은 보안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2020년 이후 2만5,000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이 이용해 온 연구 인프라임
- 추가적인 연산 규모나 특수 컴퓨팅이 필요한 연구는 Danish Centre for AI Innovation (DCAI)과의 협력을 통해 덴마크 국가 AI 슈퍼컴퓨터 Gefion도 UCloud AI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상용 서비스보다 낮은 비용으로 AI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투명한 크레딧 기반 할당 방식을 적용함

○ 플랫폼은 덴마크 자체 AI 모델의 개발부터 평가·활용까지 연결하는 연구 인프라로도 활용됨

- 국가 연구 이니셔티브 Danish Foundation Models(DFM)가 개발하는 개방형 덴마크어 모델을 UCloud AI에서 직접 제공해 모델 개발·시험부터 연구 및 응용서비스 활용까지 동일한 인프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오르후스대학교에서는 기존 UCloud를 활용해 라디오 프로그램의 3,000개 이상 고민 사례에 대한 언어모델의 답변과 인간 패널의 조언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Lex.dk와 생성형 AI를 결합하는 Lex.llm 프로젝트에도 활용하고 있음

※ 출처:
https://cas.au.dk/en/currently/news/show/artikel/danske-universiteter-lancerer-uafhaengig-ai-platform-til-forskning-og-innovation-ucloud-ai

19. 칼스버그재단, 3개 융합연구센터에 1억 5,000만 DKK 지원 (2026.9.22.)

○ 칼스버그재단(Carlsberg Foundation)은 설립 150주년을 맞아 덴마크 기초연구의 학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의 'Carlsberg Founda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Centres'에 총 1억 5,000만 DKK를 지원함

- 각 연구센터에는 6년간 5,000만 DKK가 지원되며,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 가운데 최소 2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해 단일 학문으로 다루기 어려운 복합적인 연구주제를 수행함
- 이번 사업에는 총 58건, 약 28억 DKK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외부 동료평가(peer review)와 일부 신청자 인터뷰를 거쳐 3개 센터가 선정됨

○ 선정된 3개 센터는 생성형 AI와 인간의 사고, 생태계 복원, 양자기술과 사회를 각각 주제로 학제 간 기초연구를 수행함

연구센터	주요 연구내용	주요 참여기관
Thinking With Machines: Human Cognition in the Age of GenAI	생성형 AI가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변화를 연구하고, 교육·창의성·과학연구에서 인간-AI 협업과 주체성·비판적 사고를 분석	오르후스대학교
Danish Centre for Ecosystem Recovery (DanCER)	경관 구조와 생태계 복원의 관계를 연구하고, 생물다양성·탄소·물 및 인간-경관 상호작용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 개발	남덴마크대학교, 코펜하겐대학교
Crafting Quantum: From Scientific Promise to Societal Pathways	양자기술을 둘러싼 관행·시장·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연구하고, 관련 불확실성과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개발	Copenhagen Business School, 코펜하겐대학교

○ 3개 센터는 여러 대학과 학문 분야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구성됨

- AI 연구센터는 오르후스대학교의 컴퓨터과학·인문학 연구진이, 생태계 복원센터는 남덴마크대학교와 코펜하겐대학교의 경관생태학·경관건축 연구진이 공동으로 이끎
- 양자기술 연구센터는 Copenhagen Business School과 코펜하겐대학교의 조직·경영학, 역사학, 사회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운영함

※ 출처:
https://www.carlsbergfondet.dk/nyheder/carlsbergfondet-fejrer-150-aar-med-150-millioner-kroner-til-tre-tvaervidenskabelige-forskningscentre/

20. 코펜하겐대, 9개월간 연구기반 스핀아웃 8개 설립 (2026.9.16.)

○ 코펜하겐대학교(UCPH)는 2026년 들어 9개월간 8개의 신규 스핀아웃 기업 설립을 지원해, 2025년 한 해 동안 설립된 7개를 넘어섰으며 추가 스핀아웃도 준비 중임

- 신규 기업들은 특허 가능한 기술과 연구기반 노하우를 토대로 설립됐으며, 근육 건강·암 진단·양자센싱·반도체·정밀농업·도시설계·친환경 목재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함

- UCPH의 혁신센터 UCPH Lighthouse는 연구자와 학생 등의 연구기반 아이디어와 스핀아웃 개발을 지원하며, 아이디어·지식재산권(IP) 평가, 자문·멘토링, 사업개발, 자금조달 등을 제공함

○ 8개 스핀아웃의 주요 기술과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음

스핀아웃	주요 기술·사업
Hercu	의약품이 근육량과 근육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비만·노화·암 등에서 치료 효과 평가를 지원
RadPoly	인체 밖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단백질을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특수 폴리머를 생산하며, DTU와 공동 설립
Magnolia Quantum Sensing	다양한 분야의 고정밀 측정·모니터링을 위한 양자물리 기반 센서 기술 개발
Noktura	농업 이미지 데이터 공유, AI 모델 학습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셋 재사용을 위한 개방형 컴퓨터비전·AI 플랫폼 개발
FabCue	차세대 반도체·양자·전자 기술을 위한 첨단 칩 개발을 보다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Phi Diagnostics	혈액검사를 통해 췌장암 등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원형 DNA(circular DNA) 기반 비침습 진단기술 개발
Sustaining Publics Ethnographic Studio	도시에서의 인간 행동과 경험에 관한 연구를 건축가·도시계획가·공공기관을 위한 설계 원칙으로 전환
LignoSolve	제지산업 부산물인 리그닌 기반 목재처리 기술을 활용해 지역 생산 목재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존 화학 보존제를 대체

- 특히 FabCue는 지역 클린룸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와 산업 사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Noktura는 실시간으로 잡초를 식별해 기존 농기계로 표적 살포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오픈소스 시스템을 개발함

※ 출처:
https://innovation.ku.dk/english/news/2026/eight-new-ucph-spinouts-bring-excellent-research-closer-to-new-solutions-for-the-benefit-of-society/

21. 남덴마크대학교, 전기차를 무선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2026.9.01.)

○ 남덴마크대학교(SDU)는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하는 양방향 무선충전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연구에 약 500만 DKK를 지원받음

- 유럽 연구 프로젝트 BiWPT(Bidirectional Wireless Power Transfer)는 전기차가 충전패드 위에 주차되면 별도의 케이블 연결 없이 충전하고, 필요할 때 배터리의 전력을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많을 때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저장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주차된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방식임
- 기존 유선 V2G와 달리 차량 소유자가 직접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 전기차와 전력망 간 전력 교환을 자동화할 수 있음

○ SDU는 프로젝트의 15개 박사과정 연구 중 2개 과제를 담당해 무선 전력전송과 양방향 전력변환 기술을 개발함

- 첫 번째 과제는 지면의 충전패드와 차량 수신장치가 정확히 정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 9~25cm 거리에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자기결합 시스템을 개발함
- 두 번째 과제는 전력망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것뿐 아니라 차량에서 전망으로 전력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양방향 컨버터와 제어기술을 연구함
- 현재 유선 충전은 약 98%, 무선충전은 운전조건에 따라 약 96%의 효율을 나타내며, 연구진은 무선 시스템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자동화의 장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둠

○ BiWPT는 Horizon Europe의 Marie Skłodowska-Curie Doctoral Network로, 앤트워프대학교가 총괄하고 8개 대학과 7개 기업이 참여함

- 프로젝트에서는 무선 양방향 충전뿐 아니라 전자기장·차폐·간섭 방지와 국제표준 충족을 위한 안전기술도 연구하며, 덴마크 기업 Converdan이 SDU의 연구에 산업 파트너로 참여함
- 연구진은 향후 주차된 차량의 무선충전을 넘어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적 무선충전(dynamic charging)으로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함

※ 출처:
https://www.sdu.dk/en/om-sdu/fakulteterne/teknik/nyt_fra_det_tekniske_fakultet/sdu-forskere-vil-goere-elbiler-til-traadloese-energilagre

노르웨이

22. 노르웨이·핀란드, 첨단 AI 통제 강화 국제 공동성명 주도 (2026.9.21.)

○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와 핀란드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은 최첨단 AI 모델 개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동성명을 주도했으며, 전 세계 22명의 정상급 지도자가 참여함

- 양국 정상은 AI가 과학·경제·공공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최첨단 모델은 상당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간이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함
- 스퇴레 총리는 AI가 안전하고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사용돼야 하며, 기술기업에도 안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힘
- 공동성명은 첨단 AI 모델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정부 및 지역기구·유엔 회원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함

○ 공동성명은 AI 기업의 안전성 검증 강화와 국가 간 공통 기준 마련, 국제적 감독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AI 기업에는 투명한 안전 프로토콜 마련, 의무적인 테스트와 외부 평가,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인력에게 충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정부와 지역기구에는 공통 안전기준의 개발·조정, 심각한 안전사고 보고 공유 등 투명성 강화와 각 지역의 연구·전문지식·독립적 평가에 대한 접근 보장을 촉구함
- 유엔 회원국에는 기존 국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AI 표준을 설정하고 검증을 지원하며 일정한 AI 역량 임계치를 넘을 경우 국가 간 협의를 소집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출처:
https://www.regjeringen.no/no/aktuelt/internasjonalt-opprop-for-bedre-kontroll-pa-ki-utviklingen/id3173324/

23.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18개 기업 혁신사업에 2억 2,800만 NOK 지원 (2026.9.13.)

○ 노르웨이 연구협의회(Forskningsrådet)는 산업·서비스 분야의 18개 기업 연구·혁신 프로젝트에 총 2억 2,800만 NOK를 지원하며, AI 활용부터 광물자원, 건설, 바이오리파이너

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함

- 이번 프로젝트들은 기술개발과 녹색전환, 신규 시장 창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연구성과를 실제 제품·공정·사업기회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련 '산업·서비스 분야 기업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는 현재까지 약 15억 NOK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전체 공모예산은 6억7,800만 NOK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음
- 이 가운데 4,000만 NOK는 희소자원의 재사용·수리·공유 확대 프로젝트에 별도 배정됐으며, 현재까지 1,710만 NOK가 지원됨

○ 연구협의회는 이번 선정사업 가운데 고순도 석영, AI 기반 알루미늄 전력망 소재 생산, 건물 데이터 활용 등 3개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소개함

기업·프로젝트	지원액	주요 연구내용
THE QUARTZ CORP AS - PureQ	1,337.5만 NOK	노르웨이 석영 매장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가공기술을 개발해 고순도 석영 생산량을 높이고 폐기물과 자원손실을 줄이는 기술을 연구
HYDRO ALUMINIUM AS - SAGA	1,600만 NOK	센서 데이터·시뮬레이션·AI와 작업자 경험을 결합해 알루미늄 전선·전력케이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 알루미늄 사용 확대와 생산 안정성·품질 향상을 추진
NORCONSULT NORGE AS - BUILDKNOW	1,600만 NOK	완공된 건물의 에너지 사용·실내환경·자원사용·건설공정 데이터를 신규 건축 설계에 다시 활용하는 디지털 학습순환체계를 개발

○ 전체 18개 프로젝트에는 이외에도 AI 기반 주택 품질관리, 음식물폐기물 바이오리파이너리, 암 세포치료제, 맞춤형 재활 보조, 폐유 재활용, 건설 프로젝트 경제적 위험관리 등의 연구가 포함됨

※ 출처: https://www.forskningsradet.no/nyheter/2026/228-millioner-kroner-innovasjon-industri-tjenestenaringene/

24.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80개 연구성과 상용화에 각 50만 NOK 지원 (2026.9.10.)

○ 노르웨이 연구협의회(Forskningsrådet)는 2026년 현재까지 80개 연구기관·스타트업의 연구성과 상용화 프로젝트에 각각 50만 NOK의 자격검증 지원금(kvalifiseringsstøtte)을 지원함

- 지원 분야는 안과 의료, 동물복지, 에너지 생산, 교육, 디지털화 등으로, 대학·전문대학·연구소·의료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함

- 자격검증 지원은 연구성과가 혁신으로 발전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 잠재 사용자와 시장 등을 검토하고, 상업적 가치 또는 사회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데 활용됨

- 올해 공모금액 가운데 1,500만 NOK는 SFF(우수연구센터), FRIPRO, ERC, MSCA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 별도 배정됐으며, 2026년 지원예산은 아직 남아 있어 연중 신청을 계속 접수함

○ 연구위원회는 지원 대상 가운데 AI 기반 안과진단·에너지 생산·설명가능 AI·AI 교육·동물 질병 진단 등 5개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소개함

연구기관·기업	주요 연구·상용화 내용
SINTEF·St. Olavs hospital·NTNU	안구 이미지를 자동 분석해 황반질환 징후를 신속·정확하게 발견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고, 전문의 자원 사용을 줄이면서 환자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현장 적용방안을 검토
Universitetet i Sørøst-Norge	물의 흐름을 제어해 소수력발전소·하천·조류의 에너지 생산량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성능과 잠재 시장·활용 분야를 검증
Simula Research Laboratory	AI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잘못된 답변이나 의사결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신뢰성·설명가능성 기술의 시제품 개발 및 시장 잠재력 검토
Fjordbyte AS	학생의 과제와 시험 준비에 시험 평가자 수준의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의 상용화를 추진
Universitetet i Tromsø·Norinnova	특정 기생충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도 microRNA를 이용해 동물의 기생충 감염을 탐지하는 진단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

○ 자격검증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결과는 이후 연구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하는 검증 프로젝트(verifiseringsprosjekt) 지원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https://www.forskningsradet.no/nyheter/2026/80-forskningsprosjekter-stotte-kommersialisering/

25. 노르웨이 Simula·Akkodis, 핵심 인프라용 보안 컴퓨팅 플랫폼 공동개발 추진 (2026.9.10.)

○ 노르웨이 Simula Research Laboratory와 Akkodis Group Nordics는 핵심 인프라와

까다로운 운영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내구성 컴퓨팅(rugged compute)·연결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력은 Simula의 AI·보안·암호기술 연구역량과 Akkodis의 하드웨어·제품 엔지니어링 및 산업화 역량을 결합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둠
- 특히 데이터가 생성되는 현장 가까이에서 중요 데이터를 처리·보호할 수 있는 보안성과 기술 주권을 갖춘 플랫폼 개발을 추진함

○ 양 기관은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 보유한 전문역량을 분담해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 개발을 추진함

기관	주요 역할·기술
Simula Research Laboratory	응용 AI, AI 안전, 사이버보안, 포스트양자암호(PQC), 검증·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분야 연구역량 제공
Akkodis Group Nordics	고내구성 하드웨어, 제품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 환경·사전 적합성 시험, 양산 확대 및 고객 공급 역량 제공

- Akkodis는 현재 국방 및 핵심 인프라 고객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전술통신 시스템과 임베디드 방산 전자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양 기관은 AI·사이버보안·암호·하드웨어·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출처:
https://www.simula.no/about/news/simula-and-akkodis-explore-joint-development-secure-compute-platforms

26.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23개 혁신 연구과제에 2억 6,900만 NOK 지원 (2026.9.21.)

○ 노르웨이 연구협의회(Forskningsrådet)는 23개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에 총 2억 6,900만 NOK를 지원하며, 2026년 한 해 동안 노르웨이 우수 연구자에게 총 15억 NOK를 투입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을 지원함

- 이번 지원은 연구자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모든 학문 분야의 고품질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건의 신청서를 평가해 23개 과제를 선정함
- 지원액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2개 과제에 8,000만 NOK, 초기 경력 연구자의 급진적 연구아이디어 4개에 700만 NOK, FRIPRO를 통한 17개 과제에 1억 8,200만 NOK로 구성됨

- FRIPRO 과제는 각각 700만~1,200만 NOK, 급진적 연구아이디어는 과제당 최대 200만 NOK를 지원하며, 이번 선정은 2026년 예정된 6차례 지원 결정 가운데 네 번째임

○ 선정 과제는 읽기·수학 능력, AI 편향, 암 치료 저항성, 생명체와 문화유산, CO_2 저장, 플래시 비등, 투자 위험선호, 세포 자가포식 등 폭넓은 연구주제를 다룸

연구기관	지원액	주요 연구내용
NTNU	약 1,000만 NOK	인간·조직·기술 간 상호작용에서 편향이 발생·강화되고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에 반영되는 과정을 연구해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구축함
베르겐대학교	1,200만 NOK	암세포가 특정 수용체를 활용해 약물에 저항하고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해 암 치료와 관련된 기본 메커니즘을 연구함
베르겐대학교	4,000만 NOK	실험실 연구결과와 지질학적 역사·지하 과정에 관한 지식을 결합해 지중 저장된 CO_2의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함
SINTEF Energy	990만 NOK	압력 저하로 액체가 갑자기 끓는 플래시 비등(flashing)의 기포 생성·성장 원리를 규명하고, 로켓엔진과 원전 냉각시스템 등의 유체 흐름 계산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을 개발함
오슬로대학교병원	660만 NOK	손상되거나 불필요한 세포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선택적 자가포식(selective autophagy)의 시작·강화·종료를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효모세포와 인간세포를 이용해 연구함

※ 출처:
https://www.forskningsradet.no/nyheter/2026/269-millioner-kroner-toppforskning-blant-annet-matematikk-leseferdigheter/

27. 베르겐대, 양자기술센터 개소…의료·보안·항법 기술 개발 (2026.9.17.)

○ 노르웨이 베르겐대학교(UiB)는 2026년 9월 15일 'UiB Kvante – Senter for kvanteteknologi i Bergen'를 공식 개소하고, 양자기술을 활용한 의료·보안·항법·물류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함

- 센터는 양자컴퓨팅·정보이론, 양자 시뮬레이션·최적화, 양자센서·실험을 3대 연구축으로 설정하고, 복잡한 계산부터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 측정, 새로운 형태의 안전한 항법 기술까지 연구함

- 특히 암 종양의 조기 발견, GPS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 미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

는 디지털 보안시스템 등이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으로 제시됨

- 물리학·컴퓨터과학·수학·화학·지구과학·의학 연구진이 참여하는 학제 간 센터로, Trond Mohn forskningsstiftelse(TMF)와 협력해 설립됨

○ UiB는 연구뿐 아니라 산업계와의 기술 활용 및 양자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함

- DNV는 이미 양자센서와 양자컴퓨팅을 활용해 선박을 검사하고 철강 구조물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기술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향후 양자안전 암호에 대비해 정보보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센터는 UiB가 수십 년간 축적한 수학·물리학·컴퓨터과학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센서기술·양자컴퓨팅·양자통신 등을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주요 분야로 제시함

- UiB는 노르웨이 최초의 양자기술 통합 공학석사 과정도 개설했으며, 첫 학생들이 2026년 8월 교육을 시작해 양자기술의 실제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함

○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의 '양자 10억 크로네(kvantemilliard)' 투자, 신규 양자센터 설립과 연구인프라 투자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연구개발에 연계하기 위한 'Kvantespranget'도 추진되고 있음

- 센터 개소 행사에는 연구자와 학생뿐 아니라 산업·금융·국방·사이버보안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자기술이 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과 활용방안을 논의함

- UiB Kvante는 대학의 자연과학·기술 분야 전략사업인 UiB Realfagh øyden의 일부로 운영됨

※ 출처:
https://www4.uib.no/fakultet-for-naturvitenskap-og-teknologi/aktuelt/vil-sette-bergen-pa-det-internasjonale-kvantekartet

핀란드

28. 핀란드, 3.88억 유로 규모 차세대 LUMI-AI 슈퍼컴퓨터 구축…AI 연산성능 10배 확대 (2026.8.31.)

○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JU)은 핀란드 CSC의 카야니(Kajaani) 데이터센터에 구축할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LUMI-AI' 공급사로 Bull을 선정하고, 총 3억8,780만 유로 규모의 조달계약을 체결함

- LUMI-AI는 현행 LUMI 슈퍼컴퓨터 대비 AI 연산성능을 약 10배, 고성능컴퓨팅(HPC) 성능을 약 2배 확대하도록 설계되며,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추론과 과학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을 지원할 예정임

- 사업비는 EuroHPC JU와 핀란드·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노르웨이·폴란드 등 6개국으로 구성된 LUMI AI Factory 컨소시엄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시스템은 2027년 하반기 CSC의 카야니 신규 데이터센터에 구축될 예정임

○ LUMI-AI는 LUMI AI Factory의 핵심 컴퓨팅 인프라로 운영돼 유럽의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AI 연구 및 산업혁신을 지원하고, 양자컴퓨터 LUMI-IQ와 연계해 HPC·AI·양자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계획임

- BullSequana XH3500 아키텍처와 차세대 AMD Instinct MI430X GPU 및 6세대 AMD EPYC 프로세서를 적용하며, IBM과 Nokia도 각각 스토리지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함

- LUMI-AI와 LUMI-IQ의 연계를 통해 과학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및 양자 알고리즘을 결합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보건·기후·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와 산업 RDI를 지원할 예정임

- 시스템 운영에는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카야니 지역난방에 재활용하는 등 기존 LUMI의 에너지·열회수 체계도 이어갈 계획임

※ 출처:
https://csc.fi/en/media-release/bull-selected-to-deliver-lumi-ai-supercomputer-powering-next-generation-ai-workloads/

29. 핀란드, 유럽 최초 논리 큐비트 기반 초전도 양자컴퓨터 구축 추진 (2026.9.10.)

○ 핀란드 CSC는 LUMI AI Factory에 양자 오류정정(Quantum Error Correction)을 적용한 논리 큐비트(logical qubit) 기반 초전도 양자컴퓨터 'LUMI-IQ'를 구축하고, 2027~2029년 단계적으로 성능을 고도화할 계획임

- LUMI-IQ는 여러 물리 큐비트(physical qubit)를 오류정정 기술로 결합해 보다 안정적인 연산단위인 논리 큐비트를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논리 큐비트 운용을 목표로 설계되는 유럽 최초의 초전도 양자컴퓨터가 될 예정임

- 2027년 IQM의 Halocene H4 기반 150개 물리 큐비트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초기 오류정정 기능을 구현하고, 2028년 논리 큐비트의 오류정정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한 뒤 2029년 Halocene H5로 업그레이드해 논리 큐비트 기반 연산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LUMI-IQ는 카야니 LUMI AI Factory의 차세대 슈퍼컴퓨터 LUMI-AI와 통합해 HPC·AI·양자컴퓨팅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양자컴퓨팅을 기존 HPC·AI 자원과 연계하고, 양자 알고리즘 개발뿐 아니라 과학·산업 분야의 실제 연구문제에 양자컴퓨팅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을 지원함

- LUMI-IQ는 EuroHPC JU와 핀란드·체코·노르웨이·폴란드가 공동 투자하며, CSC가 LUMI-AI 등 기존 AI·HPC 인프라와 연계 운영해 유럽의 양자 오류정정 기술과 차세대 컴퓨팅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 출처:
https://csc.fi/en/media-release/lumi-ai-factory-advances-toward-europes-first-superconducting-quantum-computer-with-logical-qubits/

30. 핀란드, 북극권 변화·국민 정신건강 전략연구에 2,400만 유로 지원 (2026.9.8.)

○ 핀란드 연구위원회(RCF) 산하 전략연구위원회(SRC)는 북극지역의 변화와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2개 전략연구 프로그램에 총 2,400만 유로를 지원함

- '변화하는 북극지역(ARCTIC)'과 '국민 정신건강(MIND)' 프로그램에서 각각 4개씩 총 8개 연구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연구는 2026년부터 2032년 가을까지 6년간 추진됨

- SRC는 프로그램별 책임자를 지정해 연구과제 간 협력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을 지원

하고, 연구자와 정책결정자·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임

○ ARCTIC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북극지역의 변화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함

- 10개 연구분야·12개 기관이 참여해 북극 안보와 환경, 지역사회 생계, 천연자원 및 자원 이용, 문화·관광 등을 연구하고, 지역사회 및 원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북극지역 변화와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MIND 프로그램은 핀란드 사회의 정신건강과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연구함

- 11개 연구분야·13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적 메커니즘과 정신건강의 연관성,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회복력 등을 연구하며, 정신건강 지원과 치료의 효과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모색함

※ 출처: https://www.aka.fi/en/strategic-research/strategic-research/for-knowledge-users/whats-new/2026/strategic-research-funding-granted-for-research-on-the-changing-arctic-region-and-public-mental-health/

31. 핀란드 VTT 스핀오프 S-Transistors, 초전도 트랜지스터 기반 양자컴퓨터 제어기술 사업화 추진 (2026.8.31.)

○ 핀란드 국립기술연구센터(VTT)에서 분사한 딥테크 스타트업 S-Transistors는 대규모 초전도 양자컴퓨터의 제어·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전도 트랜지스터 기반 집적회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며, 260만 유로 규모의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함

- 기존 초전도 양자컴퓨터는 극저온의 양자 프로세서와 상온 제어장비를 큐비트별 배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배선 복잡성과 전력소비·발열이 증가해 대규모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 S-Transistors는 트랜지스터의 신호제어 기능과 초전도체의 초저전력 특성을 결합한 웨이퍼 스케일 초전도 트랜지스터 기술을 활용해 제어·인터페이스 기능을 양자칩 인근의 극저온 환경에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양자컴퓨터의 에너지 효율과 확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투자는 북유럽 벤처투자사 Lifeline Ventures가 주도했으며, S-Transistors는 투자

금을 활용해 극저온 신호제어 시제품 개발부터 자체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까지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임

- 우선 기존 극저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초전도 트랜지스터 기반 멀티플렉서를 첫 제품으로 개발해 설립 첫해 초기 고객과 전략적 파트너에게 공급하고, 자체 극저온 연구실과 초전도 집적회로 파일럿 생산라인도 구축할 예정임
- 장기적으로는 mK급 극저온 환경에서 대규모 QPU를 제어하는 '양자 마더보드(Quantum Motherboard)'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며, 향후 AI·HPC 하드웨어, 우주 전자 및 입자검출기 등으로 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출처:
https://www.vttresearch.com/en/news-and-ideas/s-transistors-raises-eu26-million-pre-seed-round-introduce-unique-superconducting?

32. 핀란드, 양자기술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Co-Research 연구에 400만 유로 지원 (2026.9.3.)

○ 핀란드 혁신지원기관 Business Finland는 양자기술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를 핀란드 수출산업의 신규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총 400만 유로 규모의 'Quantum Technology Co-Research' 연구지원 공모를 추진함

- 지원 분야는 양자컴퓨팅·시뮬레이션, 양자통신, 양자센싱·계측을 비롯한 핵심 기반기술과 소프트웨어로, 핀란드 양자기술 전략 2025~2035의 국가 로드맵을 주요 연구방향으로 설정함
- 핀란드 소재 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연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간은 통상 최대 2.5년으로 단기 상용화보다 향후 시장 변화를 견인할 전략적 원천기술과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둠

○ 연구성과가 기업의 후속 R&D와 신규 수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설정함

- 신청과제에는 연구성과를 활용할 최소 3개 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자금 또는 장비·시설·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해 연구에 기여해야 함. 기업 참여 수준과 연구비 부담 비중도 평가에 반영됨
- 국제 선도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주요 평가요소로, 국제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 해외 파

트너 발굴 및 후속 국제프로젝트 준비 등을 통해 해외 기술·역량과의 연계를 지원함

○ 공모는 2026년 8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단계로 진행되며, 9월 28일까지 예비제안서를 접수한 뒤 Business Finland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11월 9일까지 최종 신청서를 제출받고 2027년 초 지원과제를 선정할 예정임

※ 출처:
https://www.businessfinland.fi/en/services/funding/calls/2026/call-for-applications-for-quantum-technology-co-research-projects/

33. 핀란드, 글로벌 성장 초기기업 대상 'Sprint Grant' 신규 지원 프로그램 시행 (2026.8.21.)

○ 핀란드 혁신지원기관 Business Finland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을 추진하는 소기업의 기술·시장 검증과 후속 R&D·민간투자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Sprint Grant'를 도입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상시 신청을 접수함

- 시제품·최소기능제품(MVP) 개발, 기술적 타당성 검증, 고객 실증, 시장·경쟁환경 분석 등을 지원해 본격적인 R&D 투자에 앞서 기술성, 고객수요 및 국제시장 잠재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둠

- 지원과제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3분의 2를 R&D 활동에 투입해야 하며, 후속 R&D 투자와 민간투자 유치로 연계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춰야 함

○ 지원대상은 직원 50명 미만이고 연매출 또는 자산총액이 1,000만 유로 이하인 핀란드 소재 소기업으로, 초기 스타트업뿐 아니라 신규 혁신을 통해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기존 기업도 포함함

- 설립 5년 이상 기업은 기존 사업의 단순 확대가 아닌 기술·제품, 목표고객, 수익모델 또는 비즈니스모델 등의 실질적 전환을 통해 국제적 확장성과 R&D 투자 확대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 출처:
https://www.businessfinland.fi/en/services/funding/calls/2026/ongoing-sprint-grant-funding

34. 핀란드 VTT·Millog, NATO DIANA 이중용도 기술 시험·검증 협력 확대 (2026.8.26.)

○ 핀란드 국립기술연구센터(VTT)와 방산·기술서비스 기업 Millog는 NATO 국방혁신가속기(DIANA) 테스트센터의 시험·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함

- VTT는 NATO DIANA 네트워크에서 2개 테스트센터와 1개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를 운영하며, 6G, 양자기술, 우주기술 및 보안 데이터전송 분야의 시험환경을 제공해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검증을 지원하고 있음

- 이번 협력을 통해 VTT의 연구·시험 인프라와 Millog의 시험·평가 전문성 및 실제 작전환경을 모사한 물리·디지털 시험환경을 연계해 현장시험을 포함한 시험·평가·검증·확인(TEVV)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양 기관은 첨단기술을 실제 국방 요구조건과 고도의 보안·신뢰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DIANA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 핀란드 이중용도 기술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임

- 특히 NATO의 신속한 기술개발·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험·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핀란드 기업의 NATO 및 동맹국 방산시장 진출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임

※ 출처:
https://www.vttresearch.com/en/news-and-ideas/further-collaboration-vtt-and-millog-nato-diana

35. 핀란드, 5대 RDI 전략분야 이행 본격화…AI가 연구·혁신에 미치는 영향 평가 착수 (2026.9.17.)

○ 핀란드 연구혁신위원회(RIC)는 국가 연구·개발·혁신(RDI) 정책의 5대 전략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이 RDI 활동과 과학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기로 결정함

- 핀란드는 ①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② 파괴적 기술, ③ 건강·웰빙, ④ 기후·환경·북극, ⑤ 안보·회복력·국방을 국가 RDI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웰빙과 국방 분야의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 올해 실시한 이해관계자 조사에서는 전략분야에 대한 RDI 주체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분야별 이행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과 국방 분야에서 RDI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명확한 역할분담과 공공수요 확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혁신위원회는 AI가 RDI 활동과 과학연구 방식에 미치는 변화와 AI 투자가 RDI 성과 및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분석해 향후 국가 RDI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전문가 패널은 AI가 RDI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AI 투자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AI 관련 연구를 RDI 관점에서 보완할 예정임

- 5대 전략분야의 실행에는 핀란드 연구위원회(RCF)와 Business Finland의 연구·혁신 지원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향후 정부의 다년도 R&D 재정계획 개정을 통해 전략분야별 지원 방향을 지속 조정할 계획임

【핀란드 국가 RDI 5대 전략분야】

①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②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③ 건강·웰빙

④ 기후·환경·북극

⑤ 안보·회복력·국방

※ 출처:
https://valtioneuvosto.fi/en/-/the-research-and-innovation-council-has-reviewed-national-strategic-choices-for-rdi-and-invites-a-panel-of-experts-to-assess-the-impacts-of-artificial-intelligence

36. 핀란드, 한국 등 8개국과 핵융합에너지 연구·상용화 국제협력 강화 (2026.9.15.)

○ 핀란드는 영국·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과 함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향후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공동성명에 참여함

- 공동성명은 2026년 9월 14일 런던에서 열린 Global Fusion Policy Summit을 계기로 채택됐으며, 핵융합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각국이 직면하는 기술적·규제적·무역 관련 과제를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핵융합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핵융합 기술의 발전 방향과 국제협력, 향후 기술개발 및 실제 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함

○ 핀란드 정부는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ITER와 함께 최근 민간투자 기반 핵융합 프로젝트 및 주요국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확대되면서 핵융합에너지가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함

- 핵융합 발전의 실제 도입까지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지만, 최근 관련 기술의 진전과 민간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뿐 아니라 규제·산업 및 국제교역 환경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핀란드가 주요 핵융합 연구개발국과 공동성명에 참여함에 따라 향후 국제 핵융합 연구·산업 협력체계에 참여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 논의에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출처:
https://valtioneuvosto.fi/en/-/1410877/finland-signs-joint-statement-on-closer-cooperation-in-fusion-energy-research